

종합·해설

■ 문-안 단일화 신경전 속 '아킬레스건' 극복 부심

문, 친노탈피·호남표 모으기 주력 안, 조직기반 확대 속 안정감 역점

범야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안 단일화 신경전 속 '아킬레스건' 극복 부심은 23일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단일화의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는 등 후보단일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다음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후보 측이나 연공 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후보단일화와 관련, "안 후보의 진의가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은 이달 안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각자의 '아킬레스 건'을 시급히 털어내며 지지층을 넓히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 '친노 탈피, 호남 열세 극복'

문 후보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을 통해 '탈(脫)계파'를 추진했으나 '친노 후보' 표리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선대위 내부에서 조차 '친노'라는 낙인을 확실하게 떼어내야 안 후보에 비해 열세 지대인 중도·무당파층으로의 표 확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다. 선대위 내부에서 친노 핵심 그룹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명직을 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안 후보와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은 문 후보에게 아픈 부분이다. 호남 내 문 후보 지지율은 '참여정부 시절 호남 탈패권' 사과 등을 통해 한때 안 후보를 추월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선주 민주당 부위원장

“동구청장 보선 출마”



김선주(56·사진) 민주당 부위원장은 16일 “전통과 문화의 가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아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 동구를 디자인하겠다”며 12·19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고, 5·18 광주의 아름다움과 아시아 문화예술의 모란이 되는 꿈이 있다”며 “시티(city) 디자인’로서 전통과 문화가 꺾이지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 쉬도록 동구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대 출신으로 (주)CJ 광주·경기·서울지점장과 광주시체육회 이사, 광주에총 특별위원, 5대 거품빼기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16일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북구 중외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김치대축제 현장을 찾아 '2010년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기순씨와 김치를 담고 있다. /최원길기자 choi@kwangju.co.kr

안 “경제민주화 3자회담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6일 민주당 부위원장 문재인 후보 측의 정치혁신위 공동구성 및 경제민주화 2자 회담 수용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 합의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은 대선 이전에 통과시키는 진전이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키는 약속을 하는 범주의 일은 3자가 만나는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일을 구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정치혁신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정치혁신을 하자는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3자가 합의해 국민에게 말씀드릴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박-문 정면충돌 가속화

정수장학회·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 놓고 연일 대립각

연말 대선을 63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간 정면충돌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 문제를 놓고 연일 살전을 주고받으면서 두 후보간 대립각이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두 후보는 대선구도 확충 후 특정 현안을 놓고 두 차례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박 후보가 지난 15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수장학회 인문사 지분매각과 관련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 후보는 기자회견 담화에서 “(그 발언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엔 NLL 논란에 대해 문 후보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박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곧바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 후보를 정조준했다. 16일엔 두 후보 측근들이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한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최필립 이사장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이사로

나타냈다. 반면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조사에선 여전히 박 후보가 아권 후보에 밀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출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대결에서는 46.5%를 기록한 박 후보가 44.7%의 안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앞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안 후보와의 각각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조사에선 여전히 박 후보가 아권 후보에 밀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출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조사에선 여전히 박 후보가 아권 후보에 밀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출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박-문-안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양자대결 박 46.4% 문 44.7%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6일 현재까지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12~14일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박-문’ 양자대결에서는 박 후보 46.4%, 문 후보 44.7%였고, ‘박-안’ 양자

대결에서는 46.5%를 기록한 박 후보가 44.7%의 안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앞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안 후보와의 각각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조사에선 여전히 박 후보가 아권 후보에 밀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출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박 후보는 안 후보를 1%포인트, 문 후보를 5%포인트 차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대선 민주 전남도당 선대위 구성

배기운·김영록·황주홍·김승남 공동선대위원장에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조만간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윤석 국회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배기운·김영록·황주홍·김승남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3선 이상 국회의원인 박지원·우윤근·이낙연·김성곤·주승용 의원은 상임고문을,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과 배종범 시·군·의회의

장단 의장은 각각 특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선거대책 총괄본부에는 현직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김재무 도의회 의장이 총괄본부장, 배종범(서부권)·김대희(동부권)·양규모(광주 근교권) 시·군·의회의 의장이 권역별 상임본부장을 맡게 된다. 도의회 부의장 및 시·군·의장은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지역위원회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맡기보다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직 시·군·의회의장단을 임명하되 일부 지역의 경우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번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날 우윤근 위원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위원장이 “전남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자, 한 의원이 “민주당의 모든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며 격려했다. 또한, 일부 위원장 단도 우 위원장의 ‘문재인 후보 지지’ 발언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온천,모텔) 대3234㎡, 건2480㎡ 감정가 42억9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건2448㎡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건1256㎡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건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쌍촌동(원룸) 대294㎡, 건2494㎡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건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건269㎡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4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 10억 ▷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군산(바이오테너지공장)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담양(금성)공장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감정가 7억1600만 ▷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이스포츠)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화정동 (예식장)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면적	건적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쌍촌동	대3238, 건3900	72㎡	25㎡	3층+이트	
화정동	대1094, 건2448	41억5천	17억	8층예식장	
차평동	대230, 건2716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두암동	대570, 건1256	12억9천	5억2천	4층점점점	
수동동	대651, 건2386	13억9천	5억2천	4층상가	
신안동	대4706, 건21123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목포동	대1786, 건2408	4억8천	2억1천	단층수원원	
보성동	대685, 건2763	7억2천	1억8천	2층상가	
전북(개)	대8076, 건5004	25㎡	10㎡	2층물류창고	
전주(근)	대865, 건2988	11억4천	5억2천	2층+이트	

아파트/빌라 박미림대표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혜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압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공장,예식장,빌딩,토지,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

경매에 관한 모든것!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경매 NPL 물건 특수물건

-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 교육/임장 활동비 등 회비없음
- ▶ 단독/공동투자가능

경매 입찰할 물건에 투자하십시오!

- ▶ 1억투자시 연1200만원 지급
- ▶ 제1순위 근저당/가등기보장
- ▶ 기간 : 1년정도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TEL 062-525-5000